

5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
 6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꾸은 꿈을 들으시오
 7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
 8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

- 37:5/ '요셉이 꿈을 꾸고': 이 꿈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가 요셉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앞으로의 이야기의 중심 주제.
 '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': '요셉(더하다)'에 대한 언어유희.
 - 라헬은 아들이 더해지기를 원했지만 형제들의 미움이 더해짐.
- 37:6-8/ '곡식 단을 묶더니': 목동이기 때문에 곡식단에 대한 꿈은 의외지만, 바로의 꿈(이삭)과 기근을 예고.
 '절하더이다': 요셉 앞에 절하는 형제들의 모습의 전조(42:6).
 - 열한 형제 모두가 절하는 것은 베냐민과 함께 두 번째 애굽에 내려왔을 때 성취.
 '참으로 왕이 되겠느냐, 참으로 다스리겠느냐': 꿈에 대한 형들의 반감.

9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꾸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
 10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꾸은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
 11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

- 37:9/ '다시 꿈을 꾸고': 계시의 진정성을 확인. 요셉 내러티브에서 모든 꿈은 쟁을 이룸(41:25).
 '해와 달과... 내게 절하더이다': 천체가 요셉에게 절한 것은 요셉을 피조물을 지배하는 위치로 상승하게 하는 것.
- 37:10-11/ '아버지가 그를 꾸짖고': 요셉의 경솔함을 꾸짖고 꿈이 실현될 가능성을 부인.
 '네 어머니와': '달'을 야곱은 요셉의 어머니로 언급했지만 라헬은 이미 사망-해석의 문제 야기.
 - 아마도 해, 별과 더불어 가족의 단위를 표현하는 의미일 것.
 '형들은 시기하되... 간직해 두었더라': 야곱이 숙고한 이유는 하나님의 신탁에 대한 자신의 경험 때문.

3) 속이는 자들(37:12-35)

12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 떼를 칠 때에
 13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
 14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 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
 15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
 16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
 17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

- 37:12/ '세겜': 히위 족속을 살해한 곳. 그 사이에 평화 협정이 이뤄졌거나, 기근의 초기 징후
- 37:13-14/ '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':
 * 야곱은 요셉을 분노한 형제들 사이에 보냄으로써, 상황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냄.
 '내가 그리하겠나이다': 요셉도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형제들의 미움이 깊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.
- 37:15-17/ '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': 천사든 사람이든 주님의 간섭의 흔적
 - 그러나 요셉을 보호하고 도움으로써가 아니라, 위험에 처하게 하심으로 간섭하심.
 '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': 가족 관계를 중시하는 요셉과 그렇지 않은 형제들의 대조.

18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피하여
 19 서로 이르되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
 20 자,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
 21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
 22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

- 37:18-20/ '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': 요셉의 겉옷으로 인해 형들은 요셉이 도착 전 죽일 계획을 꾸밈.
 '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': 요셉 살해의 직접적인 계기. 요셉에 대한 깊은 분개심과 기만의 뿌리.
 '자, 그를 죽(이)자': 혼자 있으면 수행하지 않았을 범 죄를 기꺼이 범함.
 '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': 꿈이 이뤄질 모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목적.
- 37:21-22/ '르우벤이... 구원하려 하여': 아버지에게 범한 잘못에 대한 후회와 선한 성품의 회복을 위한 목적이었을 것.
 - 그러나 형제 살인을 막은 것은 르우벤의 동정심이 아닌 유다의 탐욕.
 - 요셉은 나중에 이 일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눈물을 쏟음(42:22-24).
 '피를 흘리지 말라': 창세기 9:4의 근엄한 율령-요셉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.

23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
 24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
 25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

- 37:23-25/ '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': 요셉의 옷이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.
 '구덩이에 던지니': 구덩이는 요셉을 처리할 때까지 붙잡아 두는 감옥의 역할을 함.
 - 자기들 손으로 죽이지 않기 위해 굶겨 죽이려는 것.
 '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': 물과 음식이 없는 상태로 간혀 있는 요셉의 곤궁에 대한 형들의 무감각.
 - 형들이 떡을 먹는 동안 요셉은 구덩이에 남겨져 있었으나 요셉은 온 세상에 떡을 먹일 사람(미드라쉬)
 - 이때 요셉에게 동정심을 품은 사람은 르우벤이 유일(42:41).
 '눈을 들어 본즉': 중요한 사건이 이뤄지고 있음을 암시(13:10; 18:2; 22:4; 출 14:10).
 '이스마엘 사람들이': 먼 옛날 이삭과 이스마엘의 다툼을 연상시킴.
 - 이스마엘의 후손이 수나 교역에서 급속도로 성장했음을 시사.
 - (28절)미디안 족속/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 낳은 거부당한 아들의 후손. 훗날 이스라엘과 갈등을 일으킴.

26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
 27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
 28 그 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
 29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
 30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

- 37:26-27/ '유다가... 무엇이 유익할까?': 살인과 살인의 은폐는 노예의 가치만큼 후환 대가를 얻지 못할 것.
 * 나중에 요셉이 유다와 형제들을 시험하는 근거가 됨-실수로 가져온 은과 곡식/시므온과 베냐민의 목숨.
 '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': 혈연을 근거로 요셉을 죽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.
- 37:28/ '요셉을/ 꺼냈다, 팔았다, 취했다': 세 번의 반복으로 중요성을 암시.
- 37:29/ '르우벤이 돌아와':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리를 비움-르우벤이 지도력을 상실하고 유다의 지위가 상승하는 징후.
 '구덩이에 이르러 본즉': 요셉을 구하려는 의도.
 '옷을 찢고': 르우벤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.
- 37:30/ '나는 어디로 갈까': 자신 또한 야곱 앞에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김.

31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솟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
 32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
 33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
 34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
 35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

- 37:31/ '요셉의 옷을 가져다가... 옷을 피에 적시고': '옷'을 요셉의 죽음의 증거로 삼음.
- 37:32/ '... 보내어... 가지고 가서': 요셉의 옷을 사자를 통해 먼저 보냈을 가능성-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겁쟁이. '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': 야곱이 자신을 '알아보지' 못한 이사를 향해 꾸민 계락을 반영.
- 37:33/ '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': 야곱은 사냥꾼의 옷과 염소 털가죽을 입고 이사를 배신하고 형에게 해를 입힘.
 - 대가를 치를 날이 도래한 것.
- 37:34-35/ '오래도록... 애통하니...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': 아들을 잃은 야곱의 비통함.
 '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': 자신도 죽어 죽은 아들을 만날 것이 유일한 위안-내세에 대한 소망.
 * '스올': 여기서는 단순히 죽은 자의 처소인 무덤을 가리킴.

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

- 37:36/ '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': 요셉의 체류지와 함께 새 주인에 대한 정보.
 - 보디발: 무지하고 아내의 거짓말에 쉽게 조종당하는 인물.

2. 유다와 다말 (38:1-30)

핵심주제

- 1) 야곱의 아들들의 고집스런 성품에 대한 또 하나의 통찰
 - 그러나 하나님은 베레스라는 아이를 통해 유다에게 상속자를 만들어 주기 위해 인간적 장애를 극복.
- 2) 요셉 이야기 중간에 유다가 들어간 것은 유다가 요셉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드러냄.
- 3) 유다의 아들들도 요셉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작은 자가 큰 자로 택함 받는 섭리적 특징을 입증.
- 4) 유다와 다말의 추악한 에피소드는 애굽에서 요셉이 보인 결백한 행동과 대조.
- 5) 룖이 베레스의 자손인 보아스와 결혼한 사건은 룖의 조상 룖과 베레스의 부모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극복의 의미.

1) 유다의 아들들과 다말(38:1-6)

1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
 2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
 3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
 4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
 5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
 6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

- 38:1/ '그 후에(그때에)': 앞의 요셉 이야기와 관련성이 있다는 암시.
 '내려가서':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일의 암시. 두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상황이 크게 다름.
 - 37장과 38장은 가족이 타락하면서 분열되는 과정을 보여줌.
 '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(나타)':
 - 16절에 유다가 창녀에게 간청하는 단어로 나오므로, 아둘람 체류는 ○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임을 예고.
- 38:2-5/ '유다가...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': 족외혼을 통해 야곱 집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위태롭게 함.
 - 그러나 요셉과 시므온도 이방인 아내를 얻음.
 '엘, 오난, 셀라': 유다의 아들들. 다른 주요 족장들과 같이 세 아들을 얻음(아담, 노아, 데라).
- 38:6/ '장자 엘': 가족의 결속과 상속 문제가 전면에서 드러나게 될 것.
 '다말': 다윗의 딸 이름이기도 함. 다말이 가나안 여인이라면 또 한 세대가 동족 외 혼인을 하게 됨.